

이주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My Future, My Business Ⅲ

코로나19 재확산, 소상공인에 직격탄... "매출 90% 이상 감소" - 연합뉴스(2020. 9. 7)
소상공인 48.5% '코로나19 장기화하면 폐업 고려' - 서울경제(2020. 4. 10)

JP모간과 한국여성재단은

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, 기회를 변화로 만들어 갈
전국의 이주여성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

지원 대상

- 1년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 개인 또는 팀(3명 이상, 협동조합/동업 등)
 ※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, 반드시 50% 이상 이주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함
 ※ 2015-19 My Future, My Business I, II에 참여한 업체도 신청 가능

지원 업종

외식업(음식점, 카페 등), 서비스업, 통·번역업, 홈페이지·SNS 기반으로 하는 무역업, 소매업 등

※ 지원제한

- 신용관리정보등재, 개인회생, 신용회복지원, 파산 등의 금융거래부적격자
- 휴업, 폐업 상태의 사업자
- 사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 및 임대업, 유흥 및 주점, 골프장 등 사치 향락업종, 비점포형, 주거형 업종

지원 내용

[맞춤형 역량강화]

창업초기의
의욕과 자신감을
되찾아 드립니다.

- 업체별 맞춤형 교육 지원
예) 세무기초, 홍보전략, 스마트창업 이해 등
- 외부자원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
예) 우수업체 방문 등

+

[맞춤형 컨설팅 및 솔루션]

전문가와 함께
여러분의 업체의 문제를 파악하고
해결합니다.

- 컨설팅 지원(업체별 4~5회)
- 업체 유지·강화 지원
예) 인테리어, 브랜딩, 매출 및 매장 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교육비
- 홍보·마케팅 지원
예) 홈페이지 구축, 온/오프라인 홍보

+

[맞춤형 사후관리 지원]

업체의 지속적인
성장과 경영을 위해
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.

- 사후관리(3~5회)
- 인적/물적 자원 연계
-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시, 필요 서비스 지원

※ 업체당 약 850만원 이내 지원 (지원세부내역은 컨설팅 이후 확정)

※ 컨설팅, 교육, 워크숍 등 사업 내 프로그램 미참여 시, 지원 제한 있음

신청
안내

[신청기간] 2020년 11월 2일(월) ~ 12월 11일(금) 오후5시까지

- ※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연장공고 할 수 있음
- ※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, 지원은 취소되며 그에 따른 책임은 개인(팀)이 부담

[신청방법] 이메일 접수

- 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(<http://womenfund.or.kr/>) 접속
- ② [공지사항]-[2020-21년 My Future, My Business III 참가자 모집]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
- ③ 신청서 작성 후, 제출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(이메일: loveoofy@womenfund.or.kr)

[신청서류]

- ① 지원신청서 1부 (* 서식1 참조)
 - ② 사업수지표 1부 (* 서식2 참조)
 - ③ 개인정보보호협약서 1부 (* 서식3 참조)
 -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- ⑤ 주민등록등본 원본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
 - 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본 1부 (* 2020년 1월~10월 기준)
- ※ ①~⑥번을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(파일명: 업체명-지원자명)
※ 위 서류(①~⑥ 모두 제출)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접수가 됩니다(하나라도 빠질 시, 접수 불가).

[문의]

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070-5129-5446

지원
사례

"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"



1~2명의 학생으로 겨우 하루 하루를 연명하던 공부방이 처음으로 10명의 수강생을 넘었을 때의 기쁨과 환희란 결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. 특히 홍보 교육을 통해 공부방의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, 재무(세무-회계) 교육을 통해 예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서 얻은 인내의 결실이었습니다.

비단 저 뿐 아니라, 주변의 다문화여성이라고 불리는 많은 친구들이 저처럼 스스로 살아가고 싶은데 전혀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'My Future, My Business'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저를 보며, 친구들까지도 용기를 얻는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.

My Future, My Business는 저 개인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었을 뿐 아니라, 주변 모두에게 '나도 할 수 있다'는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. 한국은 이제 내 집이고 내 나라입니다. 내가 바로 설 때, 그리고 저와 같이 성장한 한 명, 한 명의 다문화여성이 건강하게 자립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때, 우리 자녀, 우리 집,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오늘보다 내일 더욱 밝을 것입니다. 개인 참여업체 [자이랑중국어 초록캠퍼스] 여성 CEO [선민화]

